

# 올 지자체 신규 공공공사 3,469억원 발주

장기공사 합하면 총 3,567억원  
기관 사업 포함시 규모 더 늘어

올해 도내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규모는 3,50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이 7일 발표한 공공 부문 발  
주계획 예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  
및 18개 시·군의 시설공사는 신규공

사 1,151건 3,469억원, 장기계속공  
사 5건 98억원 등 총 1,156건 3,567  
억원으로 나왔다.

이는 도와 18개 시·군 등 지자체  
발주 공사 규모로 한국철도시설공  
단, 한국도로공사, LH 등 주요 공공  
기관의 도내 사업을 포함하면 발주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토교통부의 '춘천~화천 3  
도로 건설공사'는 총 1,256억원이 투

입, 국가기관 신규 발주 공사 중 전국  
에서 일곱 번째로 예산 규모가 컸다.  
지자체 공사 중에는 인제군의 '덕산·  
부평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총 5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올해 전국에 총 30조4,  
000억원의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  
으로 상반기에 전체의 61%인 18조  
5,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  
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중앙회  
이사회에 참석.

# “수익금 30% 지역사회 환원이 목표죠”

## 강원 아너소사이어티를 만나다 박용환 원주 더파크그룹 대표

강원도 고액기부자들의 모임 아너소사이  
어티 29호 회원은 박용환 원주 더파크그룹  
대표다. 박 대표는 세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 차라 자수성가하며 어려운 상  
황 속에도 위기를 극복해 지역사회에서 건  
실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박용환 대표의 선행  
은 30대 때부터 시작했다. 30세까지 자신을  
돌보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2003년부터  
해마다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벌여 1,000여  
명의 노인을 즐겁게 해 드리고 있다. “어른  
을 공경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람이 되  
라”는 할머니의 가르침과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박 대표는 “성장기에



홀로 나를 키우며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  
준 할머니를 생각하며 경로잔치를 시작하  
게 됐다”며 “행사를 이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  
연을 맺은 뒤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

며, 지역 주민자치위원으로 ‘원주시민 서로  
돕기 천사운동’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룹 더파크는 원주 더파크 종합건설을  
모기업으로 종합 수입차 타운과 수입차 5개  
브랜드, 6개 전시장 등 10개 사업체로 구성  
된 향토기업이다. 박 대표는 경로잔치 외에  
도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상  
반기에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하반기에는  
나 홀로 노인돕기 봉사활동을 매년 진행하  
고 있으며, 더파크의 임직원 150여명도 연  
봉의 1%를 적립해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  
웃들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박 대표는 “앞으로 회사 수익금 30%를 지  
역에 환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경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 올 공공부문 신규 시설공사 30.4兆 나온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 시설공사 발주 규모가 지난해보다 2.1%(6000억원) 늘어난 총 30조4332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주 규모 증가 폭이 소폭인 데다, 2015년(31조5914억원)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해 건설업계 물량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 일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발주계획을 집계한 2017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7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6·7면

계획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발주계획을 예시하는 국방부와 한국전력, LH 등을 제외한 올해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 규모는 총 30조4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국가기관 발주 물량이 늘었

조달청, 발주계획 공표  
 지난해보다 2.1% 증가  
 수주갈등 해소엔 역부족

고 지자체 물량은 비슷하며 공기업 등 기타 기관 물량은 줄었다.

국가기관의 올해 발주계획은 6조1086억원으로 지난해(5조638억원)보다 20.6% 증가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항만·도로 공사와 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등 신규 발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가 발주기관은 △해양수산부(5231억원·이하 증가액) △국토교통부(3815억원) △행정자치부(2257억원)이다.

지자체의 올해 발주계획은 7조

3477억원으로 지난해(7조2956억원)보다 0.7% 증가해 비슷한 수준이다.

공기업 등 기타 기관의 올해 발주계획은 16조9769억원으로 지난해(17조4523억원)보다 2.7% 감소했다. 조달청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와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따른 발주규모 축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발주금액이 크게 줄어든 기관은 △한국가스공사(3798억원·이하 감소액) △한국철도시설공단(2608억원) △인천도시공사(2378억원) 등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올해 정부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주 물량이 늘어난 것은 신규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장기계속공사 집행 예산은 줄어들

량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계속공사 발주계획은 8조5527억원이었지만, 올해는 6조1569억원으로 2조원 넘게 줄었다.

한편 공사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신규 공사는 61%인 2만3992건, 18조5245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물량(2239건, 6조1569억원) 중 90%인 2172건, 5조7781억원을 상반기에 발주한다.

조달청은 이번 발주계획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예상 규모(41조원)의 74%에 해당되며 집계되지 않은 기관을 포함할 경우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 발주기관 甲질 제재, 다시 고삐 조인다

발주기관들의 갑질을 제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약발’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다시 메스를 꺼내들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SOC(사회기반시설) 분야 발주기관은 물론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분야 발주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으로 갑질 개선 대상을 확대하고 새로운 불공정관행을 발굴하는 게 핵심이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킥 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일선 발주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국토부 산

15일 불공정관행 개선 킥오프 회의  
 한전·가스공사·지방공기업 등  
 주요 발주기관으로 대상 확대  
 새로운 유형 발굴해 개선 추진

하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내놓은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앞선 방안은 LH, 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공사비 부당 삭감 △추가 비용 미지급 △발주기관 과업 부당 전가 △계약상 대자의 권리 제한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한 특약·내부지침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발주기관의 갑질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선 큰 의미가 있었지만 갑질에 대한 제재가 일회성에 그치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일부 발주기관들의 갑질을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발주기관은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의 현장에 부실별점을 부과하거나 기술형인찰 심사 등에서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는 등 보복을 가했고, 또 다른 발주기관은 간접비 소송을 피하기 위해 간접비 보상 내용증명을 반송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갑질을 일삼고 있는 발주기관의 대상폭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주기관과 국방부 등 다른 중앙부처, 지방공기업 등

주요 발주기관을 모두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발주기관의 갑질이 비단 국토부 산하 기관의 문제가 아닌 만큼 발주기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가 비용 미지급 등의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일부 성과를 거둔 만큼 이들 유형 이외에 새로운 갑질을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민원 등이 발생하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건설사를 압박하는 등 갑의 횡포가 여전하다”면서 “불공정관행 개선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새로운 유형의 갑질을 개선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조달청 집행 신규공사 9.3兆... 상반기 72% 쏟아낸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 시설공사 발주계획(30조4332억원) 중 조달청을 통한 발주규모는 9조3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8조1000억원)보다 14%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2015년(9조5445억원)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조달청은 올해 신규 발주규모가 발주계획을 충족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하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발주계획 예시는 8조1000억원이었으나, 실제 발주금액은 9조2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었다.

조달청은 3분의2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장은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반기에 신규 조달발주 공사의 72%인 6조7000억원 상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요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신규 공사는 5조5788억원 규모다. 도로·항만 등의 발주물량 증가로 지난해(4조6218억원)보다 20.7%(9570억원) 증가했다.

지자체가 중앙조달 방식으로 집행하는 신규 공사는 1조8529억원 규모다. 복선전철,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공사 감소로 지난해(2조4707억원)보다 25%(6178억원) 감소했다.

공기업 등 기타 기관은 늘었다. 올해 1조8586억원으로 지난해(1조588억원)보다 76%(7998억원) 증가했다. 도시철도 및 경

**국가기관 발주물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14% 늘어 계획 미동보 기관 고려하면 10조원 넘어설 가능성 높아 다음달 1조 규모 발주 계획**

기도청사 신축 등 규모가 큰 공사의 조달 의뢰 계획 때문이다.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9조3000억원 이의 21조100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자체 발주시스템이나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자체 발주된다.

조달청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신규 공사는 지난해(6조7430억원)보다 10.7% 늘어난 7조4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방식이 4조5584억원으로 지난해(3조8362억원)보다 18.8% 늘었다. 특히 중앙조달 방식 기술형입찰 방식이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턴키방식은 2943억원으로 지난해(5402억원)보다 45.5% 줄었고, 대안방식도 5030억원으로 지난해(8023억원)보다 37.3% 감소했다. 기타 방식은 2조1122억원으로 35%(5479억원) 늘었다.

조달청의 신규 공사 월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3월이 가장 많다. 397건 1조885억원 규모가 집행된다. 이어 △1월(244건, 1조5708억원) △6월(216건, 9638억원) △10월(75건, 9520억원) △5월(268건, 8127억원) △4월(232건, 7996억원)로 대부분 상반기에 발주물량이 집중된다.

상대적으로 휴가철인 7월(67건, 2765억원)과 8월(30건, 1617억원) 그리고 11월(55건, 1292억원)에 발주 물량이 적게 나올 예정이다.

조달청에 신규 공사 발주를 맡긴 수요기관별 물량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196건, 2조59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해양수산부(81건, 1조4192억원) △교육부(153건, 1627억원) △경기도(68건, 5696억원) △경기도시공사(9건, 3744억원) 순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올해 정부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시설공사 조기집행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발주계획을 포함한 올해 공공부문 발주계획 예시자료는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달청은 발주기관, 발주시기, 공종, 계약방법, 공사규모 등 상세한 정보가 제시돼 있어 건설기업들이 영업·수주전략을 수립하고 입찰을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 계약방법별 발주계획 보니

올해 기술형입찰 방식 집행이 크게 줄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집행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조달청이 집계한 올해 신규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기술형입찰(턴키·대안·기술제안)은 10건 1조5367억원 규모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7건, 2조4858건보다 38.2%(9491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은 122건, 13조6131억원이 발주된다. 이는 지난해 120건 13조649억원보다 4.2%(5482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의 잦은

## 기술형입찰, 1.5조... 작년보다 38% ↓ 중심제 대상, 13.6조 규모로 4% 증가

유찰과 개정된 중심제의 낙찰률 상승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 같은 집계는 각 수요기관이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집계한 것이어서, 아직 계약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물량이 기술형 입찰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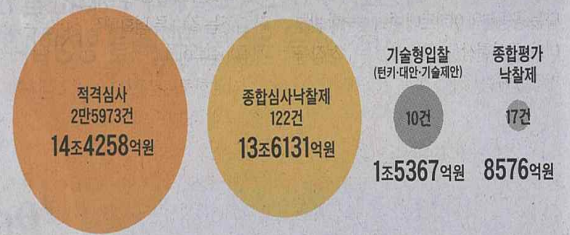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17건, 8576

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2만5973건, 14조4258억원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기관별 전체 발주 규모는 한국도로공사가 5조7185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2조8861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2조4274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1조522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 발주 규모가 가장 큰 공사는 해양

## 계약방법별 신규 시설공사 발주계획



수산부 수요의 3400억원 규모인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공사다.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는 39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공사는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해양수산부, 2451억원) △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

(경기도시공사, 2489억원) 등이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149건, 16조7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기관(47건, 3조6181억원) △지방자치단체(17건, 8576억원) △기타기관(85건, 11조5317억원)이 차지했다.

한상준기자